

담양군 '농어촌 삶의 질' 전남서 가장 높다

효도행정 기반 '향촌복지' 모델 구축 등 활력 증진 1읍면 1축제 개최...주민 소득 창출·문화 갈증 해소

담양군이 전남 22개 시·군 농어촌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8위, 전남 1위로 선정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군은 새로운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 모델을 구축,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담과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를 주치의',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한 병원 동행, 퇴원환자 돌봄 사업 등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조기 검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및 12세 이하 아동 정기 예방접종 강화 등 누구나 행복한 '담양형 향촌복지'를 통해 농촌지역 대표 복지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담양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

한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조성해 예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 갈증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관광문화축제로 선정된 담양의 대나무축제, 겨울 대표축제인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특색있는 야간 콘텐츠를 채워 넣어 온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정면 은행나무축제, 가사문학면 찰옥수수 음악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등 향토 자원을 활용한 '1읍면 1축제'를 개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문화로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담양군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남지역 중 1위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전국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담양군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총감독에 박명성 예술감독 위촉

40여년간 뮤지컬 등 대규모 행사 기획·연출력 겸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총감독에 박명성(썬시컴퍼니 예술감독)이 위촉됐다.

1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시청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총감독으로 박명성 감독을 위촉했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박명성 총감독, 최정기 부시장, 이정준 섬박람회 조직위 본부장, 박형열 지원단장이 함께해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박명성 총감독은 해남 출신으로 1982년 문화예술계에 입문했다. 이후 40여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 대규모 행사의 총감독으로 영역을 넓혀 왔으며, 현재는 썬시컴퍼니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감독은 '맘마미아', '시카고', '산

불'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한국 공연을 제작한 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로도 이름이 높다.

특히 2023년 목포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비롯해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막식, 2015년 광주해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진두지휘하며 뛰어난 기획력과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정기명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획·연출 감독인 박명성 감독을 섬박람회 총감독으로 위촉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이자 30여개국, 300만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품격 높고 볼거리 가득한 박람회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명성 총감독은 "사람과 섬이 함께 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박람회를 만들



정기명(오른쪽) 여수시장이 지난 9일 시청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총감독으로 임명된 박명성(썬시컴퍼니 예술감독)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겠다"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화려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섬의 가치와 인류의 공존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도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금오도, 개도 등 섬 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경제청 '찾아가는 건축행정 현장상담반' 운영

분기별 1회 운영...기업 맞춤형 상담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은 기업이 건축허가·시공 등 절차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다.

상담반은 전남도건축사협회 회원 소속 컨설팅 분야 전문 건축사, 광양경제청 건축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분기별로 1회 운영 중이다.

상반기 상담반은 지난 4월 울촌·해룡산단에서 진행하며 2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상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 내용과 관련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상담 기업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선·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덕 광양경제청 투자기획부장은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 운영은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광양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우미 제도를 하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사 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기자

순천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순천역-순천만국가정원 구간 자율주행차 운행

순천시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11일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노선 운행에 앞서 지난 5월 시민홍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정원문에서 오천그린광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체험노선을 운행한다

올해 자율주행 운행이 지난해 정원박람회 기간 운행과 달라진 점은 기존 1대 임차 운행에서 2대로 증차했다는 점, 사전 체험노선 운행을 통해 지난해에 부족했던 홍보활동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존 25km/h에서 40

km/h로 속도 향상을 통해 교통체증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은 매주 평일(월-금) 1일 9회,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 배차돼 오후 4시20분에 운행 종료하며 왕복(순천역-국가정원 동문) 50분이 소요된다.

자율주행차는 국가정원 동문 버스정류장과 순천역 앞 자율주행 셔틀 정류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셔틀 정류장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예약 탑승하거나 배차시간에 맞춰 현장 탑승하면 된다.

또한 순천시는 역에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는 등 1인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운행 서비스는 시민의 독창적인 관광사업"이라며 "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김철우 군수 "주민 주도 보성 600사업 확장"

자치분권포럼서 보성 브랜드 시책 공유

김철우 보성군수가 광명시 자치분권 포럼에서 우수정책 '보성600'을 발표하며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광명시 아이박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김철우 군수는 '보성600'과 보성의 비전을 설명했다.

광명시 자치분권포럼은 광명시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분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

방정부의 우수 자치분권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 보성군의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발표됐으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보성600'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마을 가꾸기 사업을 넘어 보성만의 브랜드 시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안심600 ▲문화600 ▲복지60



0등 보성군 행정 전 분야에 확대·적용되며 전남도 등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건강

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보성600' 사업 확장과 함께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건강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내달 16일까지...1ha당 19만원 지원

장성군은 "오는 8월16일까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일반벼 농가에서 드론,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단지별로 농약을 일제 살포하는 공동방제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농약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위해 약제비 지원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1ha당 약제비와 방제비를 합산해 19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방제 작업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을 비롯한 농업 현장에서 높은 호응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은 공동방제 기간인 8월16일까지 작기 방제를 통해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



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동방제 추진을 위해 읍·면 및 지역농협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 밖에도 육묘상자 처리제, 상토, 비료 등 양질의 농자재부터 곡물건조기, 지게차, 포장재, 트랙터까지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장성=김문태기자

고흥군, 녹동신항 공동체정원 맨발길 조성

습식 황톳길 170m·마사토길 160m

고흥군은 "최근 지역민의 녹색 쉼터 역할을 하는 녹동신항 공동체정원에 맨발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춰 이번에 조성된 녹동신항 공동체정원 맨발길은 고운 황토가 깔린 습식 황톳길(170m)과 지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마사토길(160m)로 구성돼 있어 이용객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

하다.

습식 황톳길의 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맨발 걷기 전용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을 설치해 주민편의를 높이고, 야간에도 맨발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맨발길을 걸어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황토 맨발길 관리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기자